백두대간 종주기 제2보

광전재료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남원의 사치재에서 함양의 중재를 지나 육십령까지 경남 함양군과 전북 장수군의 경계를 지나면서)

제3구간 : 사치재(500m) → 봉화산(918m) → 광대치(800m) → 중재(755m)

종주길이 : 약 20.3km, 종주시간 : 약 10시간

등반일 : 2003년 2월 8일~9일

오늘도 백두대간 종주팀을 태운 버스는 토요일 오후 11시를 뒤로하면서 오늘의 종주 시작점인 사치재(88 고속도로 남원방향 휴게소)를 향하여 출발한다.

차안에서 이구 대장님 왈 지난주에 이번 구간 탐사 결과 눈이 많이 쌓여 있고 구간이 제2구간보다 길어서 산행이 조금 힘들 것이라는 안내를 가슴에 안고 내일의 산행 작전을 짜면서 눈을 감아본다.

근데 개인 출발팀 출석점호 결과 6명중 2명이 불참하여 4명이 3회차 출석을 축하하면서 4천대왕으로 칭하기로 하였다.

이름하여 인천의 한은 다문천왕(多聞天王), 번동의 심은 증장천왕(增長天王), 불광동의 최는 지국천왕(持國天王), 평촌의 나는 광목천왕(廣目天王)으로 정하고 오늘도 산행을 즐겁게 하기로 한다.

번동의 심은 산행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500년 전에 예약을 해 놓았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잠을 못자게 귀찮게 한다.

새벽 3시 20분에 올해 들어 가장 심한 안개 속을 뚫고 버스는 지리산 휴게소에 도착하였고, 날씨는 무협지에 나오는 귀곡성과 같이 음산하고 미풍에 나부끼는 안개가 자욱한 것이 어찌 기분이 나쁜 날씨이다.

4시 30분 장비를 챙겨 들고 오늘 산행에 대한 이구 대장님의 설명과 함께 안개 속을 헤치고 출발한다.

사천대왕의 등반 회의 결과, 오늘은 무조건 선발대에 합류한다는 작전에 따라 선두를 유지하면서 가이드를 뒤에 세우고 걸가를 10여분 이구 대장의 호루라기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은 백두대간 마루금으로 접어 들었고 우리는 도로를 계속 걷고 있었다. 어찌 초반부터 꼬이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을 안고 빠른 걸음으로 무리속에 합류한다.

우선 작전을 수정하여 복성이재 까지는 최대한 빠르게 전진하기로 하고 안개낀 대간의 자락을 붙잡기 위해 걸음을 빨리 옮긴다.

몇 고비의 아름다운 별빛이 흐르는 안개 언덕을 넘어서면서 별이 빛나는 하늘이 정말 아름답다는 감탄

를 해본다.

어느 무명 언덕 위에 올라 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운해(雲海)와 여명(黎明). 그런데 다문천왕이 손오공이 타고 다니던 구름이 여기에 왔다고 하면서 자기도 타 보겠다고 폴짝 뛰다 5m를 미끄러져 내려간다.

운해와 여명을 따라 걸기를 어언 3시간 30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달려온 3시간 30분, 제1목적지인 복성이재에 도착해보니 사천대왕이 가이드와 함께 1착으로 도착하였구나.

가이드의 무덤 옆 아침 식사 명령에 따라 된장국을 만들고, 물을 끓이고 하면서 잔수성찬을 준비하면서 한잔 술로 오늘의 아침을 축하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느긋하게 아침을 즐기기를 어언 40분 등반팀의 수가 반으로 줄고 우리는 부랴 부랴 짐을 챙기고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한다.

근데 어찌 몸이 천근 만근이네, 아침 해장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그래도 봉화산에서 정상주를 먹기로 하고 기쁜 숨을 몰아 철쭉나무 군락을 헤쳐 나가면서 발아래 펼쳐진 운해에 감탄사를 연발해 본다.

가이드왈 오늘 같은 운해는 백두대간 종주중 하루나 이틀 정도 밖에 볼 수 없는 현상이라면서 제7차 종주팀의 행운을 부러워 한다.

봉화산(918m)에 올라서니 구름을 타고 있는 손오공이 되었네.

봉화산에서 정상주를 한 잔하고 광대치를 향하여 힘차게 출발한다.

워킹타임 6시간이 지나가고 날씨는 좋아서 사우나 안에 있는 것과 같아 얼굴에서는 땀이 흘러 내리고 가지고 있는 식수는 바닥나고 정신은 혼미해 지면서 이제부터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오직 앞만 보고 걷는다.

광대치를 내려 오니 워킹타임 8시간이 지나가고 앞을 보니 월경산을 향하는 깔딱고개가 앞을 가로 막고, 몸은 천근 만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잡목 숲을 헤쳐 나간다.

고개를 올라서니 다른 산악회의 대간 종주팀이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 한잔을 권하길래 염치 불구하고 한 컵 크게 얻어먹고 마지막 능선을 향하여 힘을 내어 본다.

고지가 저기인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증장천왕의 넋두리를 들으면서 중재를 향하여 암릉길을 따라 내려가는 가파른 여정.

마지막 가이드를 만나 우리 위치를 물어 보니 13명 정도가 우리 보다 먼저 갔다고한다.

중재에 내려 서서 터벅 터벅 눈 녹은 도로를 따라 김치찌개가 기다리고 있는 중기마을을 향하여 오늘의 마지막 종주를 끝낸다. (총 워킹타임 약 10시간)

제4구간 : 중기마을(500m)→중재(755m)→백운산(1279m)→영취산(1176m)

종주길이 : 약 19km, 종주시간 : 약 10시간

등반일 : 2003년 2월 8일~9일

겨울을 물리치려는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저녁, 오늘도 저녁 8시 40분에 15kg이 넘는 배낭을 짊어지고 집사람의 따가운 눈총을 배웅삼아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마음속으로 내일 새벽에는 비가 그쳐 주기를 빌면서.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일기 예보에 비가 내리는 평촌의 국제 유통단지를 헤매어 간신히 우의를 하나 장만하여 비상용으로 배낭에 넣고 나니 비 너 올테면 오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려도 본다.

동대문운동장역 8번 출구, 이구 등반대장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사천대왕의 얼굴을 찾는다. 아직 인천의 다문(多聞)천왕이 도착하지 않고 있다. 오늘도 출입구를 못찾아 헤메겠구나 하면서 증장천왕과 지국천왕에게 다음부터는 24시 선술집에서 한잔하면서 4대천왕이 다 모이면 동시에 입장하자고 제의를 해본다.

3회차의 마지막 구간인 중기마을에 어렵게 우리를 태운 버스는 도착하고, 하늘에서는 안개비가 힘차게 내리고 있었다.

일요일 새벽 4시30분, 이구 대장의 힘찬 출발 목소리와 함께 7차 종주팀의 4회차 구간을 향한 발걸음이 부산스러워 진다.

불광동의 지국천왕이 2주일 동안 헬스클럽에서 몸을 만들었다고 초반부터 어깨 힘차게 선두그룹으로 치고 올라간다.

함양의 진산인 백운산을 향한 마루금을 더듬어 안개비와 얼어붙은 땅과 쌓여 있는 눈과 싸우면서 나아간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나뭇가지를 잡아 당기면 나뭇가지가 얼어 장갑이 붙고 이마에는 빗물인지 땀인지 모르는 물방울이 고여 떨어 지고 앞사람은 자꾸만 멀리 달아 나려고 하고 정말 고역이다.

고갯길 2시 30분간의 사투 끝에 날이 새면서 백운산(1,278.6m) 정상이 보인다.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하나 안개비는 어느 새 눈보라로 변하여 갈길 먼 나그네의 마음을 괴롭힌다. 허기진 배를 바람 결에 실려 오는 눈으로 달래며 영취산을 지나 내리막 길 1시간, 가이드의 아침 식사 명령이 전달되어 왔다. 얼레 정말 볼만하구먼, 내리는 눈발속에서 먹는 아침 식사 장면이야 말로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행복한 모습(?)이다. 우리 4천 대왕도 평평한 곳을 분양받아 먼저 버너에 불을 붙여 코펠로 된장국을 끓이고 아침 반주를 인천의 다문천왕이 가져온 담플로 건배하고 허겁 지겁 밥을 퍼먹는다.(정말 아무런 생각도 걱정도 자신도 없는 무의 상태이다)

내리는 눈보라를 뒤로 하고 오늘의 3번째 고지인 깃대봉을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장갑도 얼고, 손도 얼고, 춥기도 하고 죽을 지경이지만 안개가 날아 붙은 나뭇가지의 얼음 꽃은 목마른 나그네에게 비경과 함께 감로수를 제공한다. 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모른다.

산죽밭을 지나고 977봉을 거쳐 민령의 억새밭을 헤치고 철탑을 돌아 깃대봉(1,015m)에 도착하니 오늘의 종점인 육십령까지 6.5km 이젠 내리막길이다. 우선 증명 사진을 찍고 마지막 만찬을 막걸이 한 병으로 준비하는 데, 후발대에서 올라온 마음씨 좋은 아저씨께서 소주팩 3병 에 캔 골뱅이와 김치를 밥상위에 올려 놓고 동네사람들을 초청한다.

눈오는 산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오늘의 완주를 축하하는 산 사나이들의 힘찬 반주를 산신령님도 눈감아 주시겠지.

마지막 내리막길을 숨가쁜 반, 눈 기운 반으로 구르고 넘어 지면서 내려오니 장수와 함양을 가르는 육십령 고개길이 나온다. 옛날에 산적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장정 60명이 무리를 지어야만 넘어 갈수 있는 고개길이라고 하여 육십령이라고 하였다는 가파른 고갯길 휴게소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긴 여정의 막을 내리기 직전에 휴게소의 할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구 대장의 고함에 따라 4천대왕은 주막으로 향한다. 10시간의 산행 후 돼지 불고기에 들이

키는 첫 잔은 산 사나이의 피로를 가시게 하고, 둘째 잔은 다음을 기약하는 약속의 잔이고, 셋째 잔은 사천대왕의 우정을 약속하는 잔이라고 하면서 피로에 지친 육신을 알콜로 적시고 버스에서 잠으로 피로를 날려버리면서 오늘의 산행 작전을 마무리 한다.

정말 힘든 하루였다.

(산행 시간 약 10시간 30분으로 예상시간 30분 초과)

※ 알아 두면 좋은 이야기

◎ 백제 신라 쟁탈지 아막산성

아막산성은 시리봉과 봉화산 사이에 있다. 성이 있는 일대는 백제에서는 아막성, 신라에서는 모산성으로 불리던 곳으로 백제와 신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던 곳이다.

현재 파악되는 성의 규모는 둘레 632.8m에 북쪽에 수구와 북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 둘레에서는 기와조각과 백제 토기편들이 나온다. 현재 북문지와 수구가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동쪽에는 직경 1.5m의 원형 석축으로 된 정호지(井戶址)가 있다. 전북지방 기념물 제38호.

◎ 화적떼 피해 넘던 육십령

영남 선비들의 본 고장 함양과 전라도의 오지인 장수를 이어주는 고개는 백두대간의 덕유산 남쪽에 있는 육십령(六十嶺)이다. 육십령은 그 굽이만큼이나 수많은 사연들을 품고 있다.

이 고개 이름을 육십령이라 하는데는 여러 얘기가 전하는데, 첫번째는 안의 감영에서 이 고개까지가 육십 리이고, 장수 감영에서도 육십 리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 한다. 두번째는 이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육십 개의 고개를 넘어야 겨우 닿을 수 있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얘기도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세번째는 산적의 화를 피해 육십 명이 모였다는 얘기. 옛날에 육십령 고개에는 산적들이 많아서 함부로 넘나들지 못했는데,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산 아래 주막에서 며칠씩 묵어가면서 육십 명의 장정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창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떼를 지어 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근처에는 당시 장정들이 모인 주막이 있던 곳이라는 장군동(壯群洞)이 있고, 산적들을 피해서 살다가 이룬 마을인 피적래(避賊來)란 마을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런 곳이었기에 육십령에는 그 산굽이만큼이나 수많은 전설이 전한다. 그중 산적에 얽힌 슬픈 이야기 한 토막.

옛날, 한 경상도 총각이 전라도에 사는 규수에게 장가를 들었다. 장가를 와서 처가에 머물기를 어느덧 일 년. 꿈 같은 세월이 흘러가자 신랑은 본가 형편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는 신부를 데리고 갈 때가 되었기에 우선 혼자 본가에 다녀오기로했다. 하지만 신랑은 육십령을 넘다가 산적들에게 붙잡혀 물건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편, 전라도 신부는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남편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올 줄 몰랐다. 실성한 사람처럼 매일 동구밖에 나가 기다리던 신부는 마침내 쓰러져 죽어 망부석이 되었다는 얘기가 전한다.

◎ 대간서 나고 대간에 묻힌 논개

충절의 여신' 주논개(논개의 성이 주씨인줄 이제

알았네)는 1574년 영취산 북쪽의 대곡리 주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논개가 13세가 되던 해 부친 주달문이 세상을 떠나자 주색잡기에 빠져있던 숙부 주달무는 당시 장수 토호 김풍한에게 논개를 만며느리로 팔았다.

그러나 논개 모녀가 완강히 반대하자 주달무는 논개 모녀를 상대로 장수 현감에게 소장(訴狀)을 올렸으나 오갈 곳 없게 된 모녀는 현감 부인의 병수발을 하면서 머물렀다. 이후 현감 부인은 세상을 뜨고, 결국 이게 인연이 되어 최경회와 논개는 부부의 연을 맺었다.

몇 년이 지나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가 된 최경회는 진주성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후 일어난 진주성 싸움에서 성이 함락당하자 최경회는 남강물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이에 논개는 승전 축하잔치를 연 왜군들 틈으로 기생으로 변장하고 들어가 왜장 게다니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꺽안고 10여일간 내린 장마비가 넘실대는 진주남강에 몸을 던졌다.

현재 최경회와 논개의 묘는 백두대간 육십령 동남쪽으로 십 리쯤 떨어진 함양 서상면 금당리 방지 마을 뒷산에 있는데, 이들 부부의 묘가 여기에 있게 된 사연은 이렇다.

진주성이 함락당하자 장수 지역 의병들은 남강 하류를 수색해 창원 지수목에서 최경회, 그리고 왜장을 껴안은 채로 죽은 논개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들은 부부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 주씨 문중과 장사지낼 것을 상의했지만, 왜적의 보복이 두려운 주씨 문중은 이를 거절했다. 또 기생이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말도 있다. 결국 이들은 백두대간 동쪽의 삼남대로변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잡아 장사지내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의병의 후손들에 의해 설화처럼 전해져 내려오던 이 묘는 20여년 전인 1975년 세상에 알려졌다. 순절한 후 382년만의 일이다. 현재 최경회, 논개의 묘는 함양군에 의해 성역화 작업이 한창이다.